

⑪ 정화는 끝 아닌 시작, 오늘날까지 운동 지속

정화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2010.03.27 11:04:00

<사진> 1955년 조계종단이 설립된 뒤 경무대를 방문(사진 위),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스님들 모습. 1954년 제 1차 정화유시 발언으로 촉발돼 이듬해 8월 종단 출범 때까지 이대통령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동산스님, 청담스님, 동헌스님 등의 모습이 보인다. 이 자리에서 어린 동자승이 이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기록원

1962년 통합종단 출범으로 정화는 외형상 일단락 됐지만 1970년 태고종 창종으로 대처측이 완전히 분리해 나가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운동을 지지하는 제 1차 유시를 시작으로 촉발된 정화는 많은 논란과 소용돌이를 겪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현재 조계종은 통합종단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1954년 정화운동이 시작돼 1955년 8월 12~13일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조계종이 출범해 1차 조계종단이 출범하지만 1960년 5·16 군사 쿠데타로 위기에 처한다. 이승만 정권의 서슬에 숨죽이던 대처측도 반격에 나서 다시 혼란이 가중되자 군부는 처음부터 다시 틀을 짜 결국 통합종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조계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청정 가풍 조성, 승려교육 진흥, 대중포교 등 '새 불교' 박차

권력과 결탁 이후 호국불교로 호된 대가 치러 금·부정 교차

무자격 승려 양성, 분규 지속화로 신도 이탈 등 후유증 심해

1955 년 조계종과 다른 점은 통합종단에는 대처측이 일부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통합종단은 형식적으로는 비구 대처를 아우르는 모습을 띤다. 물론 대처승 중에서도 결혼을 했지만 독신으로 사찰에 상주하는 사실상 비구승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구승단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1 차 이승만 정부 아래서 결성한 조계종과 2 차 박정희 정권 아래서 만든 통합종단은 모두 비구승 중심의 종단으로 일제부터 시작된 왜색불교 청산, 임제종 계통의 정통 선종, 부처님 이래 비구 중심 청정 승단이라는 불교적 민족적 과제를 해결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한국불교는 1700 여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다양한 교파와 문화를 접합해 인도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불교를 형성한다. 그 특징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선불교에 바탕을 둔 회통불교다. 즉 선불교를 중심으로 삼되 염불 주력 등 다양한 수행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종합형 불교인 셈이다. 또 하나 특징은 보살도를 중히 여기는 대승불교의 근간을 형성하면서도 부처님 당시의 출가중심 불교를 고수한다는 점이다.

이는 초기불교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남방불교나 대승불교를 강조하는 중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점이다. 이같은 한국불교의 특징을 형성한데는 조사(祖師)와 사찰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한말에 등장한 걸출한 선승들에 의해 한국불교는 조사 중심의 선불교라는 특성이 강조되고 발전됐다.

이미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한국불교는 일제 치하에서 ‘대처’와 중앙집권 형 근대 종단체제를 맞아 정체성이 흔들렸다. 물론 일제가 한국불교에 끼친 긍정적 영향도 많다. 가장 큰 장점은 대중포교와 교육이었다. 조선 500 년을 거치면서 한국불교는 생존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탄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대중포교 승려교육은 엄두도 못냈다.

그 결과 승려의 지위는 천민으로 떨어졌고 불교의 정체성도 심하게 훼손됐다.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불교를 **일거에 신분 상승시킨** 것이 일제였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일제를 거치면서 한국불교는 특정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형 불교에서 종단 중심의 중앙집권제로 바뀌고 막대한 토지 자본을 바탕으로 엘리트들이 다수 배출된다. 또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아 도심 포교당이 들어서고 대중교화, 교육에 눈을 뜬다. 그 가운데 전래부터 내려오던 조사선 역시 민족주의 경향을 띠면서 세를 형성하는데 해방 후 절대 소수 위치에 있던 비구승들이 새로운 종단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통합종단은 대처승 중심에서 비구승 중심으로 종단과 사찰의 구성원들이 교체되면서 일제시대 씨앗을 뿌렸던 대중포교 승려교육이라는 과제는 그대로 계승 발전한다. 오히려 대처승들이 장악하던 종단 시절 보다 이 분야에 더 매진하게 된다. 그리고 종단 중심의 중앙집권제적 양상도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제시대부터 한국불교에 주어진 사명은 승풍진작, 대중포교, 승려교육 이 세 가지였다. 승풍은 조선조 500년을 거치면서 거의 희박해졌다가 구한말 일부 걸출한 선승들을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해 통합종단이 계승 발전시켰다. 대중포교는 통합종단이 완전히 안정을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그 시작은 재가자들이 먼저 나섰다. 스님들이 본격적으로 대중 포교에 나선 것은 통합종단이 출범하고도 20여년이 흐른 뒤였다. 그동안 종단 정비에 몰두하면서 대중포교를 소홀히 한 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님들이 수행에 더 신경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승려교육은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 곧바로 시작돼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 동국대 중비생 제도가 만들어지고 강원이 잇따라 들어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불교의 현대화였다. 통합종단이 들어선 때는 이제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1960년대 말부터 한국사회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봉건적 지주제를 바탕으로 한 농촌경제의 붕괴와 도시화가 본격화 되고 기독교를 앞세운 서구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던 시기다. 덩달아 불교는 미신으로까지 격하되면서 또 한번 사회에서 퇴출 위기를 맞는다. 서양문물을 동경하던 젊은이들, 농촌에서 올라와 도시빈민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서민들은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로 달려간다. 지식인들은 미국 유학 길에서 할머니 어머니의 종교인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며, 민주화를 외치던 청년들 역시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던 교회에서 안식을 찾았다. 반면 불교는 급변하는 사회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90%에 이르던 신자들의 절반 이상을 잃고 주도권을 서양 기독교에 내준다. 이런 가운데 불교도 현대화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서두르고 사회복지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이 역시 통합종단의 바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통합종단의 가장 아픈 고리이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정부와의 관계다. 비구 중심의 종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탄생이 불가능했다. 특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불교재산관리법은 통합종단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법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도 종단이 안정적으로 출범했고 이 법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재산손실도 방지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불교는 호국불교라는 이름 아래 독재자와 그 가족의 안녕을 비는데 발 벗고

나섰다. 해인사 스님들은 승복 대신 예비군복으로 갈아입고 총을 들고 고장을 지키는 현대판 승병으로 나섰고 총무원장 이하 종단의 중진 스님들이 군에 들어가 집체교육을 받았다. 유신을 옹호하는 강연에 불자들이 연사로 나서 전국을 순회했다. 대신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받는 지원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지원이 군법당 건립이다. 개신교 가톨릭보다 10년 늦게 시작하고도 대등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데는 1970년대 현역 장성들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정화가 남긴 또 하나 상처는 분규의 상설화, 무자격 승려의 양산으로 인한 폭력 난무다. ‘정화하러 간다’는 말은 이후 ‘사찰을 뺏으러 간다’는 뜻으로 변질됐다. 1970년대 이후 문화재관람료, 국립공원입장료 수입이 생기면서 절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고질화 된다. 이는 대처측 사찰을 접수하던 관행이 굳어져 생긴 병폐였다. 정화가 외형적으로는 종권 다툼, 사찰 쟁탈전, 소송 등으로 나타나면서 종단은 대처승들이 물러난 뒤에도 이 세 가지를 놓고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삼보정재가 사라지고 분규에 절망한 신도들의 이탈을 불러온다. 이 모두 정화가 남긴 상처인 것이다.

결국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은 비구승단의 출범이라는 제도를 갖췄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내용을 채우는 데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화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다.

이후 연재에서는 통합종단 출범 후 종단 3대 지표뿐만 아니라 승려교육, 포교, 수행가풍 진작 등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정화의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 각 분야에 걸쳐 살펴본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불교신문 2610호/3월 31일자]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838>

